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4주일 성소주일
제37권 24호(가해) 2017년 5월 7일

[묵사]

부르심

나는
한번도
숨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흰 깃을 치며
무인도로 날아 버린
시인 같은 물새였을 때

뽕잎을 꺾어 먹고
긴 잠에 취해 버린
꿈꾸는 누에였을 때

해초 내음 즐기며
모래 속에 웅크린
바다 빛 겹질의 조개였을 때

깊은 가슴 속으로
향을 피우던
수백만 개의 햇살

찬란한 당신 앞엔
눈 못 뜨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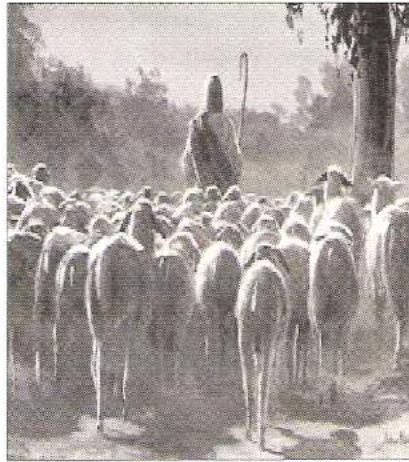
부르시는 그 사랑을
들게 하소서

무량의 바다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소리치는 태양이여

당신에겐
순명하여
피리 부는 바람

춤추는 파도로
뛰어가게 하소서

-이해인 수녀-



<나는 양들의 문이다.>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꾸리아 오후 1:30 3제주 - ●요셉회 4제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성모님 공경 이유

5월은 성모님의 달입니다. 성당에 오면 성모님 앞에서 봉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 성인, 순교자 등과 관련하여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적지를 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성지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은 가장 큰 성지입니다. '성모님의 자궁'도 예수님이 9개월이나 머물렀던 흔적이요, 은총의 장소로서 가장 큰 성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모님 공경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7)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상 스승의 유언을 받들어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공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과 성인에 대한 공경을 구분합니다.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공경과 흠숭의 예를 흠숭지례(欽崇之禮)라고 합니다.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각별한 공경의 예를 상경지례(上敬之禮), 성인 성녀들에게 드리는 존경과 사랑을 공경지례(恭敬之禮)라고 합니다. 흠숭지례는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께만 유일하게 드리는 공경의 예입니다. 인간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신앙의 모범이 되신 성모님께는 특별한 공경의 예를 드립니다. 하느님을 증거한 삶을 살아가신 성인께는 존경을 드리는 공경의 예를 드립니다.

흠숭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를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 호칭기도에서 흠숭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모님과 성인에게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성모송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성모님만큼 아들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한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습니다.(루카 2,51 참조)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 교정

Quiz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빈칸을 채우세요.

	성			천		의		모
광			상	주			모	
송		공						
			지					마
흠			례		요		복	

<4월30일 자 정답>

- ① 미카엘 ②가브리엘, 기쁜소식
③감동, 천사, 영원한 천사

「성경 속 동식물」 18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는 뱀

성경에서 뱀은 50여 차례나 언급되는데 그 역할도 다양하다. 성경에서 뱀은 간교하고 교활하지만 (창세 3,1-15 참조), 또한 지혜로운 동물(마태 10,16 참조)로 묘사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리 뱀을 쳐다보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민수 21,4-9 참조)

신약에서는 이 구리 뱀을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한다.(요한 3,13-14 참조)

뱀은 죽음의 세력, 하느님에 의해 찢어져 사도들의 발아래 밟히는 사탄으로도 표현한다.(로마 16,20 참조)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4627 아님 0073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고, 특별히 사제와 수도자 성소를 위해 기도하는 '성소 주일'입니다. 수도원마다 지원자가 급감하여 걱정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학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당에 갈 때마다, 복사들에게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사제가 되기를 꿈꾸는 소년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젊은이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기도해주시길 청합니다.

오늘은 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는 '생명 주일'이기도 합니다. 마침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당신 자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요한 10,9)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은 생명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장 같습니다. 사제와 수도자만이 불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생명의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1베드 2,20-21 참조)

예수님은 바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門)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고요. '예수님이 곧 문'이라는 말씀이 특별히 저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실 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살아가면서도무지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문제와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앞을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해결해야 할 숙제나 풀어야 할 짐이 너무 무거운데 그에 비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도무지 내 삶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한 발도 앞으로 내딛기 어려울 때, 그럴 때에 그 장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작은 쪽문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화 속에서 '책꽂이' 인줄 알았는데 사실은 외부로 통하는 '비밀의 문'인 경우처럼 말입니다.

엄청나게 절망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문이 되어

주십니다. 눈을 감고 마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분은 제 손을 잡아주십니다. 매일의 미사는 '문 너머'의 환희와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미리 '문 앞으로' 당겨 보여주는 영적 향연입니다. 아침에 들은 복음 말씀 한 구절이 하루 종일 기쁨과 위로의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에게 문이 되어 주시고 손수 '문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그 문의 비밀번호가 4627인데 0073도 된다고요. 46은 구약성경, 27은 신약성경의 권수입니다. 0073은 당연히 신구약을 합한 숫자지요.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은 곧 성경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문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스르르'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이 아닐까요? 행복한 날 되세요.

◆ 유정촌 티모테오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집 한 칸

balconi 난간에 새가 집을 지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동지에 앉아
하염없이 비 오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 무엇에도 간섭 받지 않을
이 동지 한 칸 지니려고
새는 그토록 많은 날
섬 없이 나뭇가지를 물어 날랐나 봅니다.
하고 보니 사람의 한 생도
새의 한 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싶습니다.

-이 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은혜 클라우디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	시무궁 루이스	박혜경 레나타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	유보나 보나	한경숙 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	시무궁 루이스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	이만석 미카엘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안나회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 ◆ 오늘 주일(4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제15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21일(주일) 11:00am~5:00pm

- 미사 시간변경 : 아침미사(오전 7시30분)와 낮미사(오전 10시) * 학생미사는 오전10시 미사와 통합
- 장소 : 축구장 잔디밭
- 대상 : 구역별 전 신자
- 청팀 : 토런스 동, 서, 남 구역
- 백팀 : 토런스 북, 하버 / 카슨, PV 구역
- 경기종목: 피구, 엉덩이 뒤에 풍선 달고 꼬집어 터뜨리기, 축구,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짝짓기, 어깨마주잡고 발등풍선 터뜨리기, 신발 멀리 던지기,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장애물달리기
- 경품 : 한남마켓상품권, 스타벅스 상품권, 요거랜드 상품권
- 참가상 : 끝까지 남아있는 가족당 쌀 1포씩
- 문의 : 박개순 도미니코 문화체육분과장 ☎(310)971-7043

◆ 2017 예비자 교리반 모집 합니다.

- 교리기간 : 5.18~12.7 (목) 저녁 8:10~9:10
- 환영식 : 5. 14일 11시 미사 후 강당
- 세례식 예정 : 12월10일
- 연락처 : 이영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5월안나회 모임 임시변경

- 일시 : 5월7일 (오늘 주일) 11시 미사후
- 연락처 : 한춘선 루시아 ☎(310)422-3393

◆ 2017 ~ 2018 학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올해로 여섯번째를 맞이하는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 수혜대상 : High school 12학년 ~ 대학1~3학년 재학생
- 자격 : 본당 등록 신자의 자녀로서, 교회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 기간 : 4.29.2017 ~ 5.31.2017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음.)
- 수여 예정일은 8.6.2017 (주일)
- 문의 : 본당 신부님

◆ 아침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 연습시간 : 아침미사전후 30분
- 연락처 : ☎(310)650-6993 정테레사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한국학교에서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이메일 : 103skccks@gmail.com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애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 ✠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 7일: 김밥(\$4) 사발면 (\$ 2, PV 봉사담당)
*주일학교 : 무수비(6학년)
- 5월 14일: Mother's Day, 친교자리없음
*주일학교 : 피자(자부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태홍 고천용 구자운 김광자 김상기 김원모 김정웅 김 준 김진우 박정희 박종열 박준범 오일순 이남현 이원형 이채철 이제욱 이주창 이형삼 임한나 조준제 주대중 최기남 최동한 최태훈 황지영 이크리스	성전헌금	강순복 고천용 구자운 김광자 김상기 김원모 김 준 박정희 이주창 이형삼 조준제 주대중 최기남 최태훈 황지영 이크리스
	합계:\$2,730		합계 : \$1,180
주일미사헌금 :\$2,297		도네이션 : \$10,000(김은)	감사헌금: \$20(김윤자)

남가주 소식

◆2017 평화의 바람 DMZ국제 청년 평화순례

- 기간 : 2017. 8. 14 ~ 20(6박7일)
- 행사구간 : DMZ일대(강원도 고성에서 경기도 파주)
- 대상 : 평화에 관심있는 만19~27세 청년 누구나
국내36명, 해외36명
- 참가비 : 없음
- 신청 기간 : 4월17일~5월15일
- http://caminjok.or.kr

◆2017 성령쇄신 봉사자 세미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지소서"(루카 1,38)

- 일시: 5월 19일(금) 오후 3시~21일 (주일) 2박3일
- 장소: 아씨시 피정센터(Poverello of Assisi Retreat House)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91340
- 강사: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예수회소속)
- 참가대상: 각성당 기도회원 및 관심 있는 신자
- 준비물:성경, 목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컵,미사 지향 및 헌금
- 참가비: \$130.00(숙박비 포함)
- 문의:본당 성령기도회장 강혜원아네스 ☎(310)780-0369
봉사회 교육부 권글라라 ☎(562)228-5629
- 주관: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K.C.R.M)714-343-4771

◆미서부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CLC)특강안내

- 주제: 영신수련
- 강사: 신원식 신부(예수회)
- 일시: 5월16일(화)~17일(수), 저녁 7시~9시
- 문의: 성아그네스 성당
- 문의: 하세실리아 ☎(323)578-2230

◆2017 남가주 청년 연합회 주최 캠프 '섬표'

- 주제: '공감'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여호1, 9)"
- 일시: 2017. 5. 19(금) ~ 21(일) 2박 3일
- 장소: 테데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37885 Woodchuck Rd 79 S Temecula, CA 92592
- 대상: 미혼 한인 카톨릭 청년 누구나
- 참가비: \$130
- 신청: 연합회 회장 임성오 바오로(714)388-2366

◆예수성심 피정의 집 전립

- Payable to: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구좌번호: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최대제 신부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323)731-4433
- 문의: 성당사무실 (323) 731-4433
- E-MAIL: ignhanddrip@gmail.com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제 메히틸다 713-4926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윤미애 안나 560-7120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페드로 218-7340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박명순 안나 968-7600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박정탐 마르시아 634-6923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메네딕다 384-3289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4	이귀관 아네스 617-3568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이번 주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	1시
--------	----

“아네스~ 오늘 생미사 넣었어.”

2013년부터 저의 또 다른 어머니가 돼 주신 시어머니가 지금껏 제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네스~ 오늘 성지 미사 가서 생미사 넣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주보를 쓰는 기회가 제게 찾아오면서야 저는 ‘생미사’가 도대체 뭐지? 시어머니께 생미사 이야기를 술하게 들은 지 3년 만에 인터넷에서 생미사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지식백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미사의 지향은 크게 생미사와 위령 미사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생미사는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지향, 특히 한 개인과 가정의 건강, 화목 및 감사하는 지향으로 봉헌되는데 교회로부터 과문을 받은 이를 제외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봉헌할 수 있다. 연미사로 불리는 위령미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한 지향으로 봉헌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남이었던 저를 위해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이 다시피 생미사를 넣어주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이가 생기지 않아 노심초사하던 제게, 언제나 밝은 얼굴로 “아무 걱정하지 마, 오늘도 미사 가서 생미사 넣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그 기쁨도 잠시, 생후 4개월 때부터 그 고통스럽다는 아토피가 생겨 밤잠 못 이루며 힘들어할 때도 “오늘 미사 가서 생미사 넣었어~ 다들 같이 기도해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 의미를 파악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 ‘용가리 통뼈’라고 자부하던, 집안일과 성당일로 쉴 틈이 없던 시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지만, 눈을 건드리는 수술은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미사에 가는 남편에게 “어머니 그 생미사 넣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머니가 때면 우리 생미사 넣어주셨잖아. 내일 수술이니까 생미사 넣어드리고 와주셔~” 제 입에서 처음으로 생미사 넣어드려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든든해 하실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 가지 도와드릴

상황이 못 돼서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생미사를 넣고 나니 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함께 기도드리니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다.

생미사를 넣으려면 헌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그때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 가끔 드린 용돈은 모두 생미사로 봉헌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미사 헌금은 성의껏 내면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구하고 감사하고, 함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 ‘생미사’의 축복을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세진아네스 / KBS 아나운서

[길을 찾는 그대에게]

하느님께서 왜 저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나요? 다른 사람처럼, 자녀들이 성적이 좋기를, 남편 사업 잘되기를, 돈 많이 벌고, 건강하기를 기도하는데, 하느님께서 저의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 주시는 듯합니다. 하느님은 참 불공평하신 듯합니다.

☞ 제가 신부가 되고 저의 출신 본당 친구들과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사제 동기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면 정말 은혜도 많이 받으니 천국은 따는 단상이 아니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각 저마다의 크기가 다른 빈 그릇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릇의 크기가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고 그 그릇을 얼마나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사제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그릇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정말 힘들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복을 많이 받기를, 자녀들이 성적이 좋아, 좋은 대학 가기를, 남편 사업 잘되기를, 돈 많이 벌고, 건강하기를 비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릇만을 키워 주기를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그릇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만 하고, 자신의 그릇이 작음을 원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이 채워야 합니다. 은혜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남의 큰 그릇 부러워하지 말고, 그릇만 키우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릇을 사랑과 회개와 용서로 가득 채우도록 합시다. 그릇이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권순호 신부 / 주례성당 주임

성모님 공경 이유

5월은 성모님의 달입니다. 성당에 오면 성모님 앞에서 봉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 성인, 순교자 등과 관련하여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적지를 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성지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은 가장 큰 성지입니다. '성모님의 자궁'도 예수님이 9개월이나 머물렀던 흔적이요, 은총의 장소로서 가장 큰 성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모님 공경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 19,27)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상 스승의 유언을 받들어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공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과 성인에 대한 공경을 구분합니다.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공경과 흠숭의 예를 흠숭지례(欽崇之禮)라고 합니다.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각별한 공경의 예를 상경지례(上敬之禮), 성인 성녀들에게 드리는 존경과 사랑을 공경지례(恭敬之禮)라고 합니다. 흠숭지례는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께만 유일하게 드리는 공경의 예입니다. 인간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셨고, 신앙의 모범이 되신 성모님께는 특별한 공경의 예를 드립니다. 하느님을 증거한 삶을 살아가신 성인께는 존경을 드리는 공경의 예를 드립니다.

흠숭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를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 호칭기도에서 흠숭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모님과 성인에게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성모송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성모님만큼 아들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한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습시다. (루카 2,51 참조)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 교정

Quiz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빈칸을 채우세요.

	성			천		의		모
광			상	주			모	
송		공						
			지					마
흠			례		요		복	

<4월30일 자 정답>

- ① 미카엘 ② 가브리엘, 기쁜소식
③ 감동, 천사, 영원한 천사

「성경 속 동식물」 18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는 뱀

성경에서 뱀은 50여 차례나 언급되는데 그 역할도 다양하다. 성경에서 뱀은 간교하고 교활하지만 (창세 3,1-15 참조), 또한 지혜로운 동물(마태 10,16 참조)로 묘사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리 뱀을 쳐다보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민수 21,4-9 참조)

신약에서는 이 구리 뱀을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한다. (요한 3,13-14 참조)

뱀은 죽음의 세력, 하느님에 의해 찢어져 사도들의 발아래 밟히는 사탄으로도 표현한다. (로마 16,20 참조)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썬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겐마-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플베다길

##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